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마태 10,39)

**제1독서**

2열왕 4,8-11.14-16L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니, 그곳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답송**

시편 89(88),2-3.16-17.18-19  
(◎ 2ㄱ)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 행복하여라, 축제의 기쁨을 아는 백성! 주님, 그들은 당신 얼굴 그 빛 속을 걷나이다. 그들은 날마다 당신 이름으로 기뻐하고, 당신 정의로 힘차게 일어서나이다. ◎
- 정녕 당신은 그들 힘의 영광, 당신 호의로 저희 뿔을 들어 올리시나이다. 저희 방패는 주님의 것, 저희 임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것이옵니다. ◎

**제2독서**

로마 6,3-4.8-11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위업을 선포하여라.◎

**복음**

마태 10,37-42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성가 안내**

- 입당성가: [205] 사랑의 성심
- 성체성가: [180] 주님의 작은 그릇
- 봉헌성가: [512] 주여 우리는 지금
- 파견성가: [29] 주 예수 따르기로

##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38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39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40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41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42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 교황 주일

‘교황 주일’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전 세계 교회의 영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을 위해 기도하는 날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과 가까운 주일에 기념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 주일을 맞아

»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 직분을 수행하는 교황이 그 직분을 끝까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 교황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 교황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희생을 봉헌합니다.

## 교황을 위한 기도

○ 모든 믿는 이의 목자요 임금이신 하느님.

친히 주님의 일꾼 (프란치스코)를

거룩한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프란치스코)가

말과 모범으로 신자들을 보살피다가

말은 양 무리와 함께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복음 묵상

오늘 복음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후배 신학생들이 한국 식료품을 소포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후배들에게 쓴 제 답장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대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이들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도 한국 식료품을 살 수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기어이 소포를 보내고야 마는 그대들은 어리석습니다. 12시간 넘게 걸리는 이곳에 소포를 보내면 고추장 용기가 깨질 수 있다는 사실보다, 이 사람이 고추장 한 숟가락 먹지 못할까 걱정하는 그대들은 어리석습니다. 시험, 논문 등으로 바쁜 시기인데 귀한 시간 쪼개서 보답도 없는 소포를 보내는 그대들은 어리석습니다. 세상은 그대들처럼 그리 어리석지 않습니다. 받을 것 다 받고, 자기 앞가림부터 챙기고, 손익 계산에 재빨라야 살 만하다는 것을 그대들처럼 모르지 않습니다.

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저는 어리석은 또 다른 사람들을

기억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어린 사제에게 털어놓았던 교우분들, 타지에서 고생한다며 봉투를 쥐어 주시던 선배 신부님들, 세상 좋은 것들을 마다하고 울타리 속에서 기도와 노동으로 살겠다고 세속의 옷을 벗은 젊은 처자들 ….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렇게 어리석어 한평생 거지로 살았고, 가타리나 성녀도 긴 머리를 잘랐으며,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도 자신의 젊은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죄없이 고통을 받고 돌아가시면서도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을 용서하시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리시고야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이들이여, 그대들의 어리석음이 하느님께 큰 찬양이 되었으리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 그대 자신들을 살릴 것이라 믿습니다. 어리석은 그대들에게 제 어리석은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갑시다.” <한재호 루카 신부>

## “가장 큰 죄인이라도 단죄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이 “말로만” 기도하는 사람들과 관련되기를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부르심을 받은 첫날부터 말솜씨가 없는 “입과 혀가 무딘” 대화 상대자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실패자”였습니다. 탈출기는 그를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자기 동포들을 향한 동정심을 느꼈고 억압받는 자들 편에 섰지만, 이내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에선 폭력 말고는 정의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그의 영광스러운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빠르게 승승장구하는 유망한 관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포착해 모험하는 사람, 자신의 소유도 아닌 양떼를 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막의 침묵 속에서, 하느님은 불타는 떨기 속에 나타나시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뵈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탈출 3,6).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라고 자신을 초대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느님에게 자신의 두려움과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신은 그 사명에 합당하지 않으며, 하느님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도 않을 것이며, 자신의 혀도 무디다고 (...) 대답합니다. 이렇게 많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 안에서, 그의 입술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은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 백성을 해방시키고 싶으십니까?” 심지어 모세오경에는 하느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믿지 않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모세를 비난하는 극적인 대목도 있습니다(민수 20,12 참조).

모세는 이러한 두려움과 종종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실제로 모세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럴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의 강인함뿐 아니라 이러한 나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게 놀랍습니다. 당신 백성에게 율법을 전하라고 하느님에게서 소명을 받았고, 거룩한 예배의 창시자, 가장 높은 신비의 중재자의 소명을 받았다는 바로 그 이유로 모세는 하느님 백성과의 친밀한 연대의 관계를 그침없이 유지했습니다. 특히 백성이 유혹받고 죄를 지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항상 백성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기억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위대함입니다. 곧, **백성을 잊지 않고, 부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바오로 사도가, 사랑하는 젊은 주교 티모테오에게 말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엄마와 할머니를 기억하고, 너의 부리와 너의 백성을 기억하여라.” 모세는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느님과 친한 친구였습니다(탈출 33,11 참조). 그는 백성의 죄와 유혹에 대해,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유배자로 살 때를 생각하며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갑작스러운 향수에 젖을 때도 자비심을 느낄 만큼 그들과 친한 친구로 남았습니다.

모세는 하느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백성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핏줄과 하느님의

말씀에 항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는 그를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민수 12,3 참조). 모세는 자신의 특권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여정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단에 속해 있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기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바로 **중재기도**였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574항). 하느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백성을 기르기 위한 그의 부성애와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를 성경은 일반적으로 모세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처럼, 하늘을 향해, 하느님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심지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세워 하느님과 자신이 지도자라는 것을 거부하는 날에도 모세는 그의 백성을 제쳐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저의 백성입니다.’ 그는 하느님과 백성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아웁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려거든, 당신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발 저를 지워 주십시오”(탈출 32,31-32).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다리이고, 중개자**입니다. 하느님과 백성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백성을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세주의자가 아니라, 자신의 집안과 자신의 혈통과 역사, **자신의 백성과 자신을 부른 하느님을 위한 중개자**입니다.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가 돼야 하는 모든 목자들에게 훌륭한 모범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목자들 ‘폰티펙스(pontifex)’, 곧 다리 놓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백성과 부르심에 의해 자신들이 속해 있는 하느님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하시지 않으려거든, 당신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발 저를 지워 주십시오. 저는 제 백성들 안에서 출세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들이 영성생활 안에서 함양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은 사람들의 결점들과 사람들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짐을 경험하더라도 그들을 단죄하지 않고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중재적 태도는 성인들의 태도입니다. 성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하느님과 그분 백성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우리의 변호자이자 중개자이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577항).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폰티펙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전구하시고, 우리 구원의 대가인 당신의 상처를 아버지께 보여주시며 중재하십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재하십니다.

**모세는 예수님과 같은 열정으로 기도하라고, 세상을 위해 간구하라고, 세상이 온갖 약점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느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모두가 하느님께 속해 있습니다. 가장 추악한 죄인들, 가장 악한 사람들, 가장 부패한 지도자들도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잘 아시고, 모두를 위해 중재하십니다. 세상은 의인들의 축복과 신심기도 덕분에 살아가며 번창합니다. 이 신심기도는 성인과 의인, 중개자와 사제, 주교와 교황, 평신도와 모든 세례 받은 이들에 의해 역사의 모든 시간과 현장에서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바쳐집니다. 중개자인 모세를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픈 마음이 들 때, 속에서 화가 날 때 - 화내는 것은 괜찮지만, 비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그를 위해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Congratulations!

SPC Sunday School graduating **CLASS OF 2020**



✦ 찬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주일학교 생활을 무사히 잘 마친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축하와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졸업의 이 기쁨은 여러분들에게는 노력의 결실이고 하나님께는 당신께서 베푸신 은총이 맺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겼던 추억들과, 서로가 의지하며 함께 이겨낸 어려운 시간들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에 분명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은총으로 기르고  
사랑으로 보살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느님의 사랑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모두 잘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졸업과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두영 신부

✦ Praise God, Sharing in His Love!

Congratulations and blessings to all the graduates who have successfully completed Sunday School from as short as 4 years and as long as 10 years.

The joy of this graduation is the fruit of your effort and the grace of God.

The memories that you enjoyed together and the difficult times that you relied on each other will be a great power to you as you begin your new start.

Whenever and wherever you are, don't forget that God raised you with grace and took care of you with love.

I hope that you never miss God's love and, through His love, everything you do will go well. I sincerely congratulate you on your graduation and a new start.

Love you all.

In Christ,  
Father Kang

# Congratulations!

## OUR SENIOR'S MESS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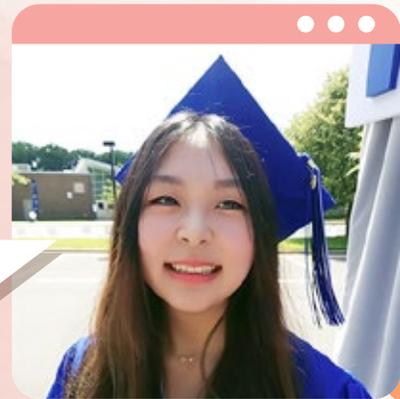


 **Caroline Hong**

Thank you to the CYO family for making CYO such a wonderful place to be. I am so excited to start my new journey in college and will remember all of the fun memories I had at church ev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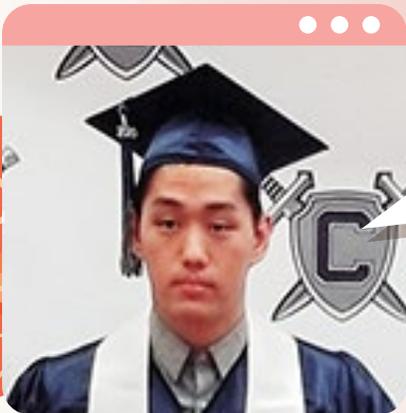
 **Chloe Kim**

I've been going to SPC since 6<sup>th</sup> grade and it stills feels like yesterday I was begging my mom to let me stay at my old church. I should thank her and my grandmother for not listening to me, because I was able to make some of my closest friends and fondest memories here. From going to Rally to CYO Summer Camp, even regular Sunday School classes will be remembered fore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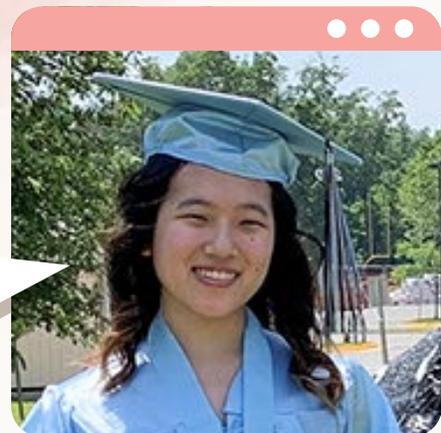
 **David Yi**

I've enjoyed all three years of CYO with the experiences I had with everyone. CYO made me grow into the person that I am today. I now have a stronger bond with God.



 **Dianne Hwang**

Throughout the past four years at CYO, I forged meaningful bonds and made lasting memories. I hope that the bonds I have forged with the people I care about last throughout the next major chapters of my life.



# Congratulations!

## OUR SENIOR'S MESSAGES



### Donna Chung

I've made a lot of friendships and memories throughout all my years of not just CYO, but Sunday School since I started in 2<sup>nd</sup> grade.

Thank you St. Paul Chung for being such a big part of my childhood!

### Dylan Jang

Ever since I joined CYO, it has never went downhill for me whether it came to people leaving or people not coming out. There's never been a week for me that I wasn't excited for CYO. CYO is what always made me happy, always bring joy to all those who come out and encourage those who don't.

I hope CYO grows not only in quantity, but the quality of the happiness and joy to all those around. Remember! Sunday only comes once a week and the amount of positivity you experience here is something rare to find in any environment.



### Yebeen Chang

Although my last days of being a part of CYO have not gone as planned, I am so grateful to have grown up in this church community and for all the amazing friends I've made!



# Congratulations!

## TEACHER'S QUOTES

*Congratulations Class of 2020,*

SPC Sunday School graduates: you are now ready to move on to the next chapter of your life - whether it's the exciting adventures that await you at college or embarking on a new path at a job. This is the time when you can use all those lessons you've learned both from life and schools. Even though this senior year was met with unexpected COVID-19 challenges, you have kept the faith strong and pushed through towards this moment.

Congratulations on your great success and thank you for all your hard work and dedication! May God's love and guidance be with you always. - **SPC Youth Ministry**

IN MY PRAYERS



**Susan Hong** 9<sup>th</sup> grade teacher

Sincerest congratulations to all of our graduated seniors! It's been such a huge blessing to watch you guys all grow as individuals to become the successful graduates you are now today. I just know God has so many more of these amazing achievements ahead for you! Can't wait to see what plans God has for you, wherever it is, my prayers go with you! Congrats again grads!

HAVE FUN



**John Kim** 10<sup>th</sup> grade teacher

"Congrats class of 2020!! I enjoyed seeing you guys grow the past 4 years. Hope you guys enjoy college!" -

GREAT



**Andy Ahn** 11<sup>th</sup> grade teacher

Congrats Seniors for graduating! You did it ~ -

IN MY PRAYERS



**Dong Han Lee** 11<sup>th</sup> grade teacher

Hello, seniors of CYO! Congratulation on finishing high school education. I will be praying for you guys on your journey in the future. Please visit church often, Lord will always be there for you. -

GOOD LUCK!



**Justin Choi** 12<sup>th</sup> grade teacher

Congrats on graduating High School! I'm grateful for having had the opportunity to grow in faith with you guys in the past year. Do keep prayers in your minds and hearts, and don't forget that you have this great community of support for you guys when you need one. I wish the best for all your future endeavors! -

#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

★아래의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 가족이나 같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 ▶ 2주 이내에 해외나 타주에 다녀오거나, 다녀온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2주 동안)
- ▶ 확진자가 발생했던 기관이나 장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2주 동안)

## • 주일 미사를 자제해야 하는 경우

- ▶ 노약자 및 고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 어린이 등 면역에 취약한 사람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방송미사,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의무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링톤 교구의 모든 신자들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요일과 의무의 날에 미사에 참석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 • 성당 입장시 준수 사항

-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 **미사 참여자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합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6FT)**를 준수해야 합니다.
- ▶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99.5°F 이상 입장 불가)



## • 성당 안에서 미사 거행 시 준수 사항

- ▶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6FT 간격 표시된 자리**에 앞자리부터 차례로 앉습니다.
- ▶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성체를 모실 때만 잠깐 벗습니다.)
- ▶ 성경과 성가집, 기도문 등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 합니다.
- ▶ 봉헌이나 영성체 시에도 일정한 **개인 간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 영성체 전에 사제가 미리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하면 신자들은 ‘아멘’ 이라고 응답합니다.  
(**영성체 시에는 마음속으로 ‘아멘’을 합니다.**)
-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마스크를 썼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서 합니다.
- ▶ 미사가 끝나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질서 있게 **즉시 성당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다음 미사를 위한 방역과 환기를 위해서 입니다.)



## • 일반 준수사항

- ▶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6FT), 손 씻기 및 소독의 생활화
- ▶ 성당 건물 안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합니다.
- ▶ 감염 예방을 위해 화장실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봉사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성당을 다녀간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시 즉시 성당에 알려야 합니다.



교황주일 2차 헌금

- 전 세계적으로 교황 주일에는 교황님의 사목활동을 돕고자 **특별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은 전 세계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며 빈곤과 재난으로 고통 당하는 형제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 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시고,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일 미사 참여 신청에 대하여

- 주일 미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웹사이트의 **“미사 참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분들이 미사 참여를 원하고 계시나 현재 미사를 자유로이 재개하기에는 결코 안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100명 이내로 제한**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사 참여자 명단**을 작성해 놓아야 하고, 참여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사전 신청을 받고 추첨으로 100명씩 선정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시범으로 운영하는 미사를 통해 여러가지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고 보다 안전한 여건에서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은 성당 사무실 (703-968-301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기도 시간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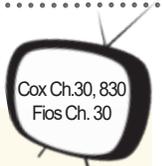
- 매일 밤 9시 한마음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주모경** 1번씩 바쳐 주시고, 묵주기도와 나머지 기타 기도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웹사이트 적극 활용

- 코로나19 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본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장수사진** 촬영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 성 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 7월 2일(목) 오후 5:00-6:00
- 7월 3일(금) 저녁 8:00-9:00
- 7월 5일(일) 오전 6:00-7:00

•특집:

황창연 신부의 행복 특강 - **삶 꺼안기 2부**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7월 1일(수) 오전 6:15-6:45 | 7월 4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윤원진 신부님의 강의 ‘위대한 성인’ (14편)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